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문 열다

무주군 태권도원 T1 경기장서 개막식 성황리 전 세계 32개국 선수단 등 5천여 명 참석 오늘 폐막식 진행, 먹거리·즐거거리 등 다채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계인” 제1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막식이 지난 14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전라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와 무주군 황인홍 군수,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등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최동열 조직위원장과 태권도 원로들을 비롯한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과 전 세계 32개국 선수단과 사범, 심판 등 태권도 관계자, 무주군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태권도출범기와 태권도시범, 문화공연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K-타이거즈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 대화사를 통해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전 세계인이 태권도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인홍 무주군수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화로서 태권도발전을 주도하고 태권도원 위상을 든든히 하는 기반이 되기를, 젊은이들이 꿈과 젊음, 우정,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동열 조직위원장은 개최선언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라북도의 멋과 맛을 즐기며 우정망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제1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의 시작을 알렸다.

제1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전라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17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12일부터 무주에 들어와 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13일 대표자 회의와 태권도 세미나(태권체조, 호신술, 품새, 겨루기, 시범)에 참가했으며 14일과 15일에는 태권도 출범기 경연대회(국민체육센터)와 태권도시범 및 태권댄스 경연대회, 품새와 겨루기 경연대회에서 기량을 뽐냈다.

또 국제오픈장기장대회가 열려 엑스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태권도원 내 태극지에서 펼쳐진 낙화놀이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폐막식(19:00~)이 열리는 16일에는 무주군의 반디랜드와 머루와인공원을 비롯해 전주한옥마을 등 도내 주요 관광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무주군은 제1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일에는 무주반디랜드아시장(무주읍 반디불시장)이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태권도원과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에서 매년 무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마이산남부 탐영제 수변공원 기대 만발

진안군, 총 15억원 투입 올 11월 준공 예정 주변 관광자원 최대 활용



진안군 탐영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총 15억원을 들여 오는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은 마이산의 아름다운 주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존하면서도 근접해서 감상할 수 있는 탐영제 수변공원을 조성 중이다.

15일 진안군에 따르면 탐영제는 마이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담겨져 있으며 저수지에 비치는 마이산의 형상이 마치 물 안에 또 다른 마이산이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다.

특히 봄철 벚꽃 개화시기와 단풍철에는 탐영제가 주변의 조경수와 어우러져 탄성이 절로 나온다.

탐영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의 일환인 마이산 자연치유신비체험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15억원을 들여 오는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를 이용해 탐영제 저수지 준설작업을 완료했다. 탐영제 옆 탐방로 구간은 친환경적인 현무암 판석으로 벗꽃 성수기 이전에 공사를 마쳤

다.

탐영제를 둘러보는 동선의 다양성과 저수지 주변에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부유데크와 부유분수를 설치하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함께 야간 관광객 유도를 위한 야간 경관조명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항로 군수는 “올 가을부터는 마이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이산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신비한 역사, 문화, 예술 공간을 만들어 세계 제1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보고 체험하는 자연속 새로운 축제 무주구천동 어사길 탐방 행사

전북의 대표적 관광명소 무주구천동관광특구가 주민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알리기 위한 색다른 축제를 연다.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무주구천동이지만 몇 년 사이 탐방객들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이 합심해 새로운 관광지인 박문수어사길을 복원한 것이다.

무주군관광협의회와 무주구천동관광특구상인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오는 오는 20일 여는 이번 '제1회 구천동어사길 탐방'10명 계곡 축제'는 조선시대 어사길을 고증

을 통해 복원한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다.

행사는 어사길 탐방외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꼬부랑 마켓, 어사길 보물찾기, 태권도원의 태권도시범, 송어야 놀자, 관광객 참여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기존 타 지역의 관광축제와 차별화된 또 다른 즐거움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구천동 33경 가운데 10경이 포함된 어사길 홍보를 위해 행사당일 어사길 완주자들에게는 무료식사 제공과 또한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 전원에게는 경품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연구소장 공개 모집

진안군은 지난 13일 재단법인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진안홍삼연구소장은 진안홍삼과 인삼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와 조직혁신 업무 등을 총괄한다.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응모자격은 홍삼과 관련된 직무수행 분야의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이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관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접수는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홍삼연구소 홈페이지(www.ijrg.re.kr)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리승용 농촌진흥청장 진안군 영농현장 방문

리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3일 진안군 부귀면의 산지초지를 활용한 흑염소 방목 사육 농가를 찾아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들었다.

이날 리 청장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 진안·무주·장수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의견 청취도 함께 이뤄졌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지초지를 활용해 염소를 사육하면 축사 안에서 사육했을 때보다 마리 당 드는 사료비용은 64% 줄어든다고, 번식률은 32%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 청장은 “산지초지를 이용한 가축사육은 동물복지 향상은 물론 관광·체험 등 농촌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축사육 모형이다.”며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현장연구와 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2018 민족농업전진대회

2018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민족농업전진대회(주최 전북도연맹, 주관 무주군농민회)가 지난 13일 무주를 떠나 무주농장에서 개최됐다.

윤여일 무주군부군수와 박병덕 정농의장, 박홍식 도연맹의장, 강우석 무주군농민회 회장 등 무주군과 전북도연맹, 무주군농민회 회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던 이날 행사는 우리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민 간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반디풍물팀의 길놀이와 함께 시작된 행사는 농민선언문 낭독 등 기념식과 체육행사(통일도전 퀴즈 등), 문화행사(초청공연), 부대행사(활동사진 전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여일 부군수는 “이 자리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치를 논의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남북교류에 청신호가 켜지고 세계평화에 희망의 기운이 한껏 깃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경력단절예방 노무·고충 상담 실시

장수군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운애) 주관으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경력단절예방 노무·고충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노무·고충상담분야 전문가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시간이

여유롭지 못한 여성근로자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정보와 고충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현장,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고, 전문가의 지문으로 해결방향을 찾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평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진장소방서, 장수 수남초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 12일 장수를 수남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4분의 1기적 골든타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를 시작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요령, 기도확보, 인공

호흡, 심정압박 등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배우고 실습마네킨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는 실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장수=고판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